

노태문 삼성전자 사장도 자사주 3.5억원 어치 매입

등록 2024.09.10 14:58:42



[파리=뉴시스]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(사장)이 10일 오후 5시30분(현지시각)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'삼성 갤럭시 언팩 2024'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. 2024.07.11. alpaca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[서울=뉴시스]윤현성 기자 =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(사장)이 자사주 5000주를 매입했다. 주당 6만9500원으로 금액으로는 총 3억4750만원이다.

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)에 따르면 노 사장은 지난 9일 자사주 5000주를 매입했다. 기존에 1만8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노 사장은 이번 자사주 매입으로 총 2만3000주를 보유하게 됐다.

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대에 머물면서 삼성전자 임원들은 주가 부양 및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. 이번 노 사장의 매입도 이같은 차원으로 풀이된다. 노 사장은 지난 6월에도 5000주를 매입했다.

앞서 지난 6일에는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(부회장)이 2년 6개월 만에 자사주 1만주(7억3900만원 어치)를 매입한 바 있다. 한 부회장과 노 사장을 비롯해 최근 삼성전자 임원들은 지난 6월부터 약 20억원 내외의 자사주를 사들였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hsyhs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